

부부의 갈등

김성훈/생명의 전화 간사

생명의 전화를 통해 지난 14년간 상담을 청해온 통화수가 총 381,302건이었다. ('76.9.1-'90.7.31) 전화를 통한 상담의 효율성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 7.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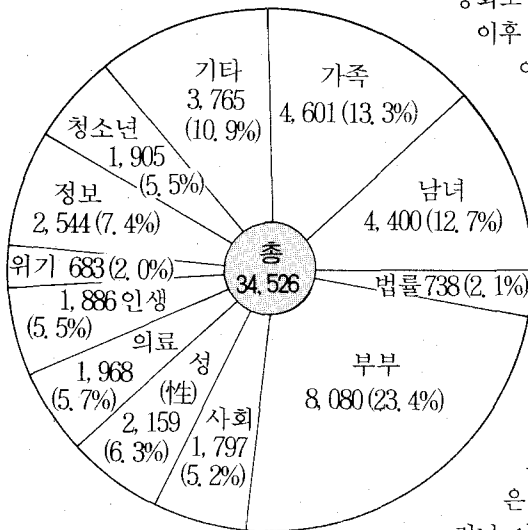
지난 한해('89.8.1-'90.7.31) 동안은 34,252통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월평균 2,852통화 일일평균 97통화의 상

담을 받은 셈이다. 가장 많이 걸려온 것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8,080건이나 되어 23.4%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이 가족간의 문제로 4,601건(13.3%) 또 남녀문제가 4,400건(12.7%)의 순으로 걸려왔다.

지난 14년간의 상담 내용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제조명해 보자.

가장 두드러진 전화는 부부문제의 증가 현상이다 '80년 이전까지는 연 3천여 통화로 12%정도로 차지하던 것이 '8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85년에는 6천여통화로 '89년에는 8천여 통화로 24%가 되었다. 즉 '80년 이후 갑자기 부부문제가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상담을 해온 내용들을 보면 배우자의 부정, 폭력, 알콜, 도박 등으로 인한 무책임, 이혼 성격상의 갈등, 친·인척 간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부부문제 등 다양하다. 이러한 외형적 현상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서로간 신뢰의 바탕도 없고 그러니 이해나 양보, 용서는 더더욱 생각

생명의 전화 “문제별” 상담통계 ('89.8~'90.7)



하기 어렵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기 위한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떠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 그 중에서도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이것은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가지로 파급되어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우리 사회가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등 향락적으로 몰들면 결국 가정과 부부사이에 도 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80년대 들어 주거환경이 아파트 형으로 바뀌어 가고 대가족에서 소가족, 아니 이젠 핵가족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물론 모든 가정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고가 아파트를 선호하고 부부중심의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이런 빠른 속도의 외형적 변화는 나름대로의 문화형성을 요구하게 되고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는 그에 맞는 구조문화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구조적 변화는 현대산업 사회에서의 성장이라는 긍정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반대 급부로 가정은 그 문화에 오히려 적응치 못하는 기현상으로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결혼에 대한 가치, 부부, 가정에 대한 인식의 혼란을 가져온다. 올바른 남녀 관계에서 비롯한 결혼·가정에 대한 가치기준이 흔들려 행복의 척도가 무엇인지 갈팡질팡한다. 성장과 행복의 기준은 현상적 물질 우선으로 변하여 이성 교제나 배우자 선택에 작용하고 이는 상대방의 내면적 자질판단을 흐리게

대화란

나의 이야기만,
나의 주장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다. 먼저 들어
줘야한다. 그것도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기 위함이나 변명
따위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면
곤란하다.

하여 깊은 이해와 사랑을 뒤로 미루는 결혼이 성행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혼전성관계, 임신, 혼수문제 등이 출발한다. 연애상대와 배우자는 달라야 한다는 공공연한 의식으로 실연의 아픔도 생기고 이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 사회적 믿음이라는 건전한 구조 문화를 실종시키게도 된다.

둘째는 이러한 상태에서 탄생된 부부들이 맞는 이기적 배반감이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보면 도저히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양보해서도 안되고 더우기 용서란 생각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웃과의 단절된 삶이 가져오는 비교·경쟁 지향적 구조 문화의 발생은 더욱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내게 된다.

사실 이들 부부는 가치관의 혼란속에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신 대가족제 아래에서의 서로에게 양보와 인내 그리고 이해와 용서, 더 나아가 존경과 신뢰에서 스며나오는 깊은 사랑을 미덕으로 간직하고 있다.

물론 꼭 그렇게 살아오진 못했지만 그것을 중히 여겼던 시대속에서 성장하였다. 살림살이가 어려워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 즉 그런 구조 문화속에서 미래적 희망을 지향하고 살았는데, 정작 조금 윤택해지고 성장하니 오히려 실제 이상을 갖고자하는 지니친 욕구와 지니친 비교경쟁이 나타나게 되고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를 흐리게 된것으로 보여진다. 성장과 발전에는 옳바른 경쟁과 그로인한 창조적 열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지 철학적 자기 인식이 없으면 단번에 쌓으려는 허황된 모래성이요, 왜 높이 올라가야하는지 모르는 바벨탑이 되고마는 것이 진리가 아닌가, 부부나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입시경쟁과 입사경쟁은 하루라도 빨리라는 출세지향적인당주의가 만연된 듯한 혼탁한 사회를 우선 부부 중심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오히려 그 속에서 혼돈으로 빠져들어 중요한 것을 잃으면 안되겠다.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두마리 토끼를 못잡는다고 원망이나 하는 허망한 삶이 되기 십상이다.

셋째로 지적할 사항은 대화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상식적인 이야기다. 다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반대로 대화가 안된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

부부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스무해가 넘도록 다른 환경 속에서 배우고 성장했는데 그래서 추구하는 삶이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이 각각일 수 있으니 자연 갈등도 생기고 마찰도 빚게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생기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우리 중심으로 말이다. 대화란 나의 이야기만, 나의 주장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다. 먼저 들어줘야한다. 그것도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기 위함이나 변명따위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면 곤란하다. 그를 이해하려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화가 나고 분하고 패썹하지만 여하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심문하듯 따지지만 말자 물론 이해하기 위해 물어볼 수 있고, 또 그럴 필요도 있다. 하지만 잘잘못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으로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돌아서 버린다. 그러면 더 화가 나고 분해진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도 잘못을 느끼지 않게될 수 밖에 나를 위한 대화에서 그를 위한 대화, 우리를 위한 대화로 시작해야겠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해야한다. 힘들지만 그것만이 절반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이다. †